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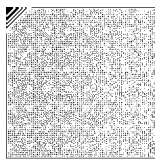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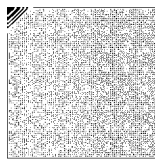


새보람

Saeboram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5년 4월 264호

(02) 796-4280 www.kappd.or.kr

3 뉴스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2 특집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14 인물

장총련 안진환 상임대표
“장애인 당사자주의 실현을 위해”



18 국제

장애인 밴드, 유로비전 결선 진출



420장애인권리찾기대행진 열려

탈시설, 활동보조 24시간 등 장애인 정책 요구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5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12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권리찾기대행진추진연대(이하 420추진연대)는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 반응하라! 장애인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정부에 복지정책 개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 모인 400여 명은 주거, 고용, 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찾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자립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6가지 요구안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본 대회와 가두행진을 통해 ▲중증장애인 탈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지원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장애인 당사



서울 보신각 앞에서 420장애인권리찾기대행진이 열렸다.

자 개방형 직위로 전환 ▲희귀난치성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호소했다.

이날 대회 무대에서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

은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배성근

회원은 “중증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보장하고,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정부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한 지 3년이 지났다”면서 “정부는 어서 우리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핵심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장애인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팀장은 “정부가 솜선수범해서 능력 있는 장애인을 임용해 장애인 관련 부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과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정부 부처에서 돌아가며 제비뽑기 식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꼬집고, “장애인 중 능력 있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 장애감수성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며 개방형 직위 전환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청계광장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6대 요구안을 담은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절규를 담아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5월 9일 세계 정상급 별들 한 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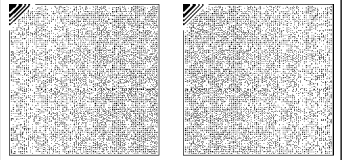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열흘 남짓 남았다. 5월 9일 서울 잠실종합운동

장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국내 유일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공인 대회로 매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쳐왔다.

올해는 기존에 치러지던 전문 휠체어 육상 선수들의 풀(42.195km)·하프(21.0975km), 휠체어 생활체육 선수들의 5km 경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5km 어울림 종목에 전문 핸드사이클 하프(21.0975km) 시범종목을 추가했다.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지장협과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공동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KBS 한국방송이 후원하며 신한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찬한다. <12면에 계속>



복지부, 제35회 장애인의 날 개최

김홍수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4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참석해 시상자로 나서고, 수상자 및 가족과 김광환 장애인 의 날 행사추진협의회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변용찬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등 내빈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제35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복지 발전 포상으로 김홍수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장 등 4명이 국민훈장을 받았고, 김귀경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동해시지회장 등 3명이 국민포장의 영광을 누렸다. 김평호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장 등 5명이 대통령포장을, 강유민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장 등 4명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비장애인 바른 표현 사용 캠페인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국민훈장을 받은 김홍수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장은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장애인복지 발전

을 위해 더욱 헌신봉사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의 장애인상은 강병령 광도한의원 대표 원장, 김지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 김지환 다운복지관 직원이 수상

했다.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은 오창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과장, 김화자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 여성부장, 배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체

장애인협회 사무처장 등 40명이 받았다.

이날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대사로 배우 차승원을 위촉했다. 차승원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어린이와 함께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임을 선언하는 '장애인인권헌장'도 낭독했다.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등 14가지 권리를 힘 있게 읽었다.

이와 더불어 기념식에서는 대국민적 캠페인으로 바른말 쓰기를 제안했다. 장애우·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일반인·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 사용해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자며 바른 표현 사용 캠페인 선포식을 진행했다.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기능대회 직종 개편

2016년부터 일부 직종 폐지, 메카트로닉스 등 새로운 분야 신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2016년부터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직종 중 일부 직종을 폐지하고, 메카트로닉스 등 새로운 산업분야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직종을 신규 개설한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의 기능 향상 및 사회 참여를 실현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981년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재 직업기능직종 32개, 레저 및 생활기술 직종 10개 등 총 42

개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직종 개편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산업 동향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고 새로운 직무영역 확대를 위해 실시하기로 했다. CNC밀링, 메카트로닉스, 바리스타, 워드프로

세서 직종 등 4개 직종을 신규로 포함했다. 반면 보조기기 제작, 치과기공, 시계수리, 수자수 등과 같이 참가선수가 연속 3회 이상 7명 이하로 참가하였거나 연속 3회 이상 성립되지 않은 직종은 폐지했다.

또 '기계(자전거) 조립' 직종은 올해 장애인기능경기대회부터 '자전거 조립'으로 직종 명칭을 변경해 적용한다.

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기능경기대회 직종 개편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직무영역을 새롭게 발굴하고 장애인들의 기능 향상으로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능력개발 기획부(031-728-7046)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콜택시 안전장치 강화 법안 발의

민홍철 의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세부기준 마련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은 장애인 콜택시 내부 안전장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와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내부의 휠체어 고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안전벨트 등의 세부설치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고 통계를 보면, 2008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장애인 콜택시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거나 느슨하게 묶여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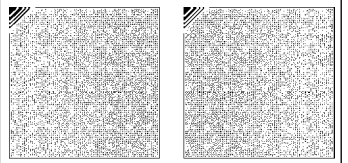
가 휠체어를 탄 채 전도돼 부상하는 경우가 18건에 이른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은 중증 장애인 이용 차량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휠체어를 2인치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유럽은 휠체어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이 갖춰야 할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휠체어 고정장치에 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해 휠체어 유형별, 휠체어 제작사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화해 놓았다.

민홍철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의 내부 안전장치의 신뢰도가 중요해 관련법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인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김성근, 김영록, 문희상, 박남춘, 박주선, 부좌현, 신정훈, 최원식, 원혜영, 이찬열,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성년후견제도폐지추진연대가 의사결정지원제를 주장하며 공식 출범했다.

성년후견제, 의사결정지원제로 전환해야

성년후견제도폐지추진연대, 공식 출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성년후견제도 폐지추진연대(이하 성페련)’가 공식 출범했다.

성페련은 4월 6일 이룸센터에서 출범식 및 출범기념 토론회를 열고, 성년후견제도의 대안으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성년후견제는 민법상 금지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대리하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성페련은 성년후견제가 장애인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해

학대받는 장애인을 옹아매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제도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치매노인,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수 집단 전체에 광범위하게 시행돼 곳곳에서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7조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제12, 13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발달장애인법 제12조를 위반하는 모순된 제도라고 소리 높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연대 박미선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기능적 인 부분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사자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손쉽게

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몇 달 전 UN장애인인권 위원회도 우리나라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권고를 한 만큼 성년후견제 폐지운동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운동이 되어 국제적 규약의 근거를 두고, 심도 깊은 이해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정봉근 교수는 성년후견제의 대안으로 조력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조력 의사결정지원제도는 단순히 특정한 성인의 도움으로 의사결정을 대신하기보다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장점은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정보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 교수는 “일부 장애인들이 은행 업무, 의료 서비스 결정 등에서 자신을 대신해 후견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경우 누군가의 힘을 빌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 본인이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적 활동 보조인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능력을 길러야 하고, 사회 전반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소장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오류를 범한다”며 “스스로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매 순간 옳은 결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산다”고 성년후견제의 가정을 반박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류나연 투쟁부위원장은 “장애인의 의사 결정 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한사람이 지정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며 “전문적인 역할을 맡아 줄 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해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도 개정해 의사결정지원제도 제공을 명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윤삼호 정책실장은 “조력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주장하거나 그와 같은 조력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노력과 돈이 든다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기존 후견인 모형에도 그만한 돈은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 제도는 추가 지출이 아니라 기존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성페련은 이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기하고,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종 요금감면서비스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 수급자 등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신청 절차가 단순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정

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취약계층이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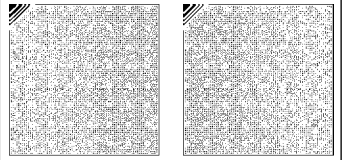
청하면서 각종 감면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 요금감면기관인 한전,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 사업자)의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더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그뿐 아니라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선된 절차대로 요금감면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에겐 일상이 재난이다”

자력대피 교육 · 훈련 지침 요구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의 추모와 함께 안전대책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도 재난은 어김없이 여러 사람의 생을 덮쳤다. 지난해 4월 17일에는 지체장애인故 송국현 씨가 화재를 피하지 못해 숨을 거두고, 6월에는故 중증장애인 오지석 씨가 호흡기 이탈로 세상을 떠났다. 장애계에서는 활동지원제도와 부양의무제 등 제도적인 문제부터 재난대피 훈련과 유형별 대피방법까지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가 거듭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은 4월 16일 ‘장애인 재난 시 자력대피 방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소방학교 박경서 전임교수는 장애인의 자력대피 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재난 약자로 규정하는 정의 확립 ▲장애인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재난 시 자력대피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확보를 위한 법 · 제도적 보완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과 시설에 대한 정보 구축 ▲재난안전 교육 ·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훈련 ▲장애인 재난안전 관련 정책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 재난 상황 시 최적의 구조자는 주변 사람들이기에 장애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약속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에서

개발 중인 ‘장애인 위기상황 알림벨’은 재난 시 버튼을 누르면, 장애인의 위기 상황을 알리는 일정한 소리가 울리는 벨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연구 단계로, 완성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은 “사고는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해 정

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기에 사고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자체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 수립,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실장은 “지난해 용산역 지하철 추락 사고를 당한 시각장애인은 3분 동안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 들어오는 지하철에 부딪혔다”며 “작은 관

심과 도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장애인부모회 특수교육분과 이경아 부회장은 “복지 종사자들이 각 장애 유형에 맞춰 지체 · 시 · 청각장애처럼 신체적 여건이 안전과 밀접할 때는 그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신체적 움직임은 좋지 만, 상황인지가 어려운 지적 · 자폐성 장애인에게는 안전 규칙을 알아들을 수 있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국민안전처 이상규 소방제도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 적합한 피난설비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며 “설비 승인과 인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경서 교수는 2013년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 보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지체장애인에게 재난이 무엇인지 묻자 “일상생활이 재난”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그 답변이 계속 장애인 재난 안전을 고민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과제를 안고 돌아갔다.

5년간 자폐증 1.5배, 진료비 1.9배 증가

4월 2일 ‘세계 자폐인의 날’ 점등식 열려

지난 5년간 자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1.5배 늘었고, 총 진료비도 1.9배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4월 2일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자폐증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인재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폐증 진료 현황을 정리한 결과, 기존에 자폐증으로 진단받았거나 새롭게 진단을 받은 이들이 2014년 7037명으로, 2010년 4845명에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하는 장애인 등록 현황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드러났다. 2010년 말 1만 4888명이던 등록 자폐성 장애인의 수는 2013년 말 기준 1만 8133명으로 3245명 증가했다.

2014년 기준 자폐증 진단자의 시도별 분포는 서울 2456명(34.9%), 경기 1781명(25.3%), 부산 585명(8.3%)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자폐증 진단을 받은 남성이 5950명으로, 여성 1087명보다 5.5배 많았다. 연령 대별로는 10세 미만 2633명(37.4%), 10~19세 2885명(41.0%), 20~29세 1537명

(21.8%) 등 대부분 낮은 연령에 분포했다.

자폐증 진단자가 늘면서 진료비도 증가했다. 2010년 25억 494만 9000원에서 2014년 48억 6115만 7000원으로 2배 정도 비용이 늘었고, 1인당 진료비도 2010년 51만 7017원에서 69만 800원으로 17만 3783원이 늘었다.

따라서 병원 방문, 입원 일수도 2010년 5만 5998일에서 2014년 9만 6706일로 늘었다. 1인당 병원 방문, 입원 일수도 2010년 11.6일에서 2014년 13.7일로 증가했다.

인재근 의원은 “4월 2일이



4월 2일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이룸센터에서 점등식이 열렸다.

UN이 지정한 자폐인의 날인만큼 자폐 환자와 그들 가족의 고통 경감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한편 2007년 UN에서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4월 2일을 세계 자폐인의 날로 선포한 후, 이즈음 매년 전 세계에서 자폐성 장애인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8회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파란등 켜기(Light it up blue)’, 유공자 표창, 자폐 사랑 배지 달기 운동 선포식을 진행했다.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여의도 이룸센터, 서울N타워, 동호대교, 인천대교 등에서 파란등 점등식이 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 입법간담회

장애인 인권보호와 정보접근성 강화 입법과제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주최했다.

4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OECD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배려, 장애인 노동자 관련 법률 수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 정 의장은 “입법간담회가 장애인노동자 관련 법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 문턱 없는 세상을 만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 의장을 비롯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설훈, 이명수, 남인순, 문정림, 김정록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및 중진 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 공무원,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과



국회의장 입법간담회 토론자들.

제’와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먼저 제철웅 교수는 장벽 없는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장애차별 및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인권침해 제도인 성년후견제 폐지와 정신장애인 비자의 치료 전면 개정 ▲특별수요신탁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대책 ▲일상생활 영위에서의 권리옹호와 지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록 의원은 장애

정책의 큰 변화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거론하며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 장애인의 제반 사정과 복지 욕구에 알맞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애종합판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윤삼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지도를 작성함에 ‘장애 차별구제를 위한 권리옹호제도(P&A 시스템)’ 도입을 힘주어 말했다. P&A 시스템을 두고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도입할지,

별도 입법을 통해 도입할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가지 아이디어로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P&A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입법과제 논의 시간에는 남형두 교수가 “기회의 균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 전제는 정보접근 보장”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비준 촉구 ▲디지털 납본제도 실효성 확보 등 도

서관법 개정 ▲점자, 확대 교과서 제공 제도화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의무화 ▲IT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의무화 ▲화면해설 및 수화 방송 확대 등 미디어 접근성 강화 ▲정부조달시장에서 장애인 접근성 제고 ▲재난 접근성 제고 방안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 발휘 위한 접근성 제고 ▲점자기본법과 수화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이구 국립특수교육원장은 구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 의견을 내놓았다.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졸업 후에도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고, 청각장애학생은 화상전화기, 자막방송 수신기 등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와 영상물 제작 시 일정 비율의 자막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체장애학생은 일정 시간 자세를 유지하고 운동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개발과 보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 원장은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는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립재활원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차량 타고 이동

이동에 불편할 뿐 아니라,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국립재활원이 무료 운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운전면허 취득에 관심 있는 장애인 중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이 기본 대상이다. 그 밖에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들은 6급까지도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에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연습용 차량을 타고 직접 이동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운전면허 취득과정과 중도장애인 운전 적응교육 두 가지로 나뉜다. 면허 취득 과정은 보통의 면허교육

과 같이 운전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도장애인 운전 적응교육은 면허 취득 후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인지능력과 운동기능이 운전엔 적합한 장애인이 해당한다.

신청은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로 전화(02-901-1553) 상담 후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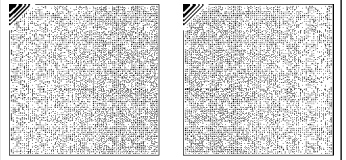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정보단말기’ 제공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 활용

오는 11월 12일에 실시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4월 1일 발표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 전년도와 같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

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또 작년과 동일하게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는 7월 초 발표한다.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 공개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등 TF팀 재구성 요구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4월 6일 이룸센터에서 발표한 계획은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승강장 발 빠짐 예방 위한 자동식 안전발판 설치 ▲2년 주기로 지하철역사 내 시각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조사 및 개선 ▲2016년까지 지하철 운영기관 통합 콜센터 출범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무장애 버스정류장 구축 확대 ▲교통카드 단말기 장착 위치 통일 ▲버스 운수종사자 장애인 인권교육 개선 ▲장애인 콜택시 증차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확대 운영 등 16가지다.



4월 6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토론회'.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여전히 전체 노

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3.3%에 그치고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 302개 지하

철 역사 중 24곳은 지상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동이 불가능하고 점자블

록이나 안내판 등의 보행 필수 시설도 미흡한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마스터플랜 발표가 끝나고 13일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서울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의 선정과 논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며 “서울시는 민관합동 TF팀을 재구성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된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 필요하다”

정부가 대학 장애학생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정해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4월 3일 토론회를 열고,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짚으며 전문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각 대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근거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다니는 대학은 반드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 직원의 업무로는 장애학생 지원, 편의 제공, 교직원 및 보조인력 교육, 장애학생 교육 복지 실태 조사 등을 명시했다.

그 뿐 아니라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도우미를 모집해 장애학생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장애학생과 연결해준다.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센터 직원이나 도우미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지만 현재 운영 구조상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은 총 330명이었다. 이중 센터 전담 직원은 28.2%인 9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71.8%인 237명은 센터 업무를 다른 업무 겸임했다.

장애학생 도우미도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2014년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 도우미 2741명 중 대학생 등 비전문가로 구성된 일반 도우미가 95%인 2619명이었다. 점역사, 수화통역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도우미는 2.4%인 65명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회 안제영 회원은 “대학들이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를 센터 직원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예산이나 행정적 문제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

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참고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도 자격요건을 법으로 정하자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주희 씨는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은 국가나 정부 차원의 기준 없이 대학의 자율적 운영 방침에 맡기고 있다”고 꼬집고 “정부 차원에서 대학의 장애학생을 전담할 부서와 인력을 배정해야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도우미에 대한 전문인력 교육과 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최주현 주무관은 “각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라고 안내했고, 이를 준수하는지 계속 지도할 것”이라며 장애학생 지원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다양한 장애인 우대금리 적용 상품 안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안내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는 화상상담을 위한 전용창구가 설치되어 있어 방문 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2011년 12월 시작해 2014년 4월까지 1621건을 상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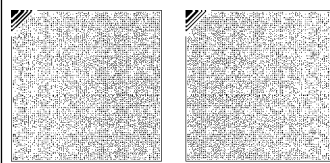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민원 서비스로 안내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민원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2015년 4월까지 58건이 접수됐다. 시각장애인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구두 민원접수도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우대금리 적용 상품도 안내했다. 예금의 경우 신한은행의 ‘신한월복리 정기예금’은 장애인에 대해 우대금리를 0.1% 제공하

고, ‘새희망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본금리 4.5%에 자동이체 시 1.5%를 추가 지급한다.

국민은행은 장애인이 ‘가족사랑자유적금’이나 ‘KB주니어 Star적금’을 가입하면 각각 연 0.2%와 0.5%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의 ‘IBK사랑나눔적금’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기본금리 2.65% 적용 후 만기 시 2.65%를 추가 지급한다. 농협은행 ‘NH희망채움통장’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 최고 1.5%를 적용한다.

예금 이외에 대출도 우대상품이 있다. 외환은행의 ‘행복나눔대출’은 장애인 대출 시 0.2% 금리감면 혜택을 주고, SC은행 ‘가계모기지론’은 장애인 2등급 이상이나 시각장애인 3등급 이상 시 우대금리 0.1%를 제공한다.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예금 및 대출금리 등 거래조건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께서울 누리축제, 여의도공원에서 개최

장애인의 날 기념 어울림 문화 행사



4월 18일 여의도공원에서 함께서울 누리축제가 열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함께서울 누리축제’가 4월 18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렸다.

2015년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손영호, 이하 서울지장협)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기쁨더함 행복더함 나눔더함’이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졌다.

기념식에는 손영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박원순 서울시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상 시상과 장애인의 날 기념 세리머니 등을 진행했다.

1부는 ‘장애인 기쁨+음악회’로 장애인 연주자가 공연하며 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꾸몄다.

이어서 2부 ‘장애인 행복+춤사위’ 시간에는 장애인 댄스팀이 올라와 분위기를 후끈 달궜다. 마지막 3부는 ‘CBS 장애인 나눔+콘서트’로 장애인과 가수

박완규, 나인뮤지스, 손승연 등이 어우러져 화합의 노래를 불렀다.

서울지장협 관계자는 “함께서울 누리축제는 서울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많은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명실상부한 서울시 장애인의 날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5 대전장애일자활실천대회 및 합동결혼식

장애인 권익 신장에 기여한 시민표창과 아름다운 혼인 서약



대전지장협이 개최한 합동결혼식의 기념 촬영.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구자권, 이하 대전지장협)는 3월 25일 ‘2015 대전장애일자활실천대회 및 합동결혼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행사 1부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 10쌍의 힘찬 출발을 위해 결혼식을 올려주는 축복의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12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해 결혼식 주인공들을 축하했다.

2부에서는 대전지장협 홍보대사인 가수 심혁의 사회로 장애인 자활실천대회가 열렸다. 무대에서 홍지영무용단 공연, 가수 류찬의 결혼식 축하, 지적장애인 기타리스트의 공연이 차례로 펼쳐지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서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꿈과 사랑을 심어주고 장애인 권익 신장에 기여한 모범시민과 자원봉사자에게 상을 수여했다. 대

전광역시장표창 6명, 대전시의회의장 6명, 대전시교육감표창 5명,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표창 5명, 국회의원상 14명 등 4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자권 협회장은 “장애인은 실질적으로 아픈 추억이 많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부부 10쌍이 새롭게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대전지장협 후원회는 신혼부부들에게 혼수품과 신혼여행 경비를 제공하고, 호텔 ICC 측에서는 장소제공뿐 아니라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해 협조했다. 아뜰리에 드 망고 오진화 대표의 웨딩진행 일체를 후원하였으며, 행사가 끝난 후 구암사 나눔회 자원봉사단은 참석 하객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마트 김포한강점, 김포시지회에 물품 기부

300만 원 상당 전달...지속 후원 약속



이마트 김포한강점이 김포시지회에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지난 4월 3일 이마트 김포한강점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지회장 이경규, 이하 김포시지회)에 300만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이마트 정환성 점장은 물품을 전달하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마트는 좋은 쇼핑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후원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이경규 지회장은 “이렇게 좋은 물품을 후원해 주시며 아름다운 기부문화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부해 주신 물품은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포시지회는 올해 1월 새로 부임한 이경규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펼쳐나갈 예정이다.

청송군 안덕면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 열려

장애인 표창장 수여 및 후원회원 위촉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지회장 조승철)와 청송군지회 안덕면분회(분회장 이이웅)는 4월 17일 안덕면 장애인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다.

개회식은 한동수 군수와 윤종도 도의원, 이성우 군의원을 비롯한 많은 내빈과 장애인 회원 및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이웅 분회장은 “매년 안덕면에서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를 열

어 장애인을 위한 한편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행사에서 장애인 표창장은 변영숙, 이정수, 도정열, 이순옥 회원에게 수여했고, 안덕면 분회 후원회원으로 권태준, 변영숙 씨를 위촉했다.

조승철 청송군지회장은 면 단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행사를 하는 안덕면분회를 칭찬하며,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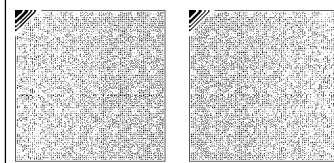
으로도 장애인 회원들의 단합과 모임을 격려했다.

또 “장애인 인권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이후 안덕면분회 자활센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준비한 라면도 한 박스씩 나누었다.



안덕면분회에서 개최한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21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이천선수단 종합우승 결실

50만 경기도 장애인의 축제가 열렸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와 경인일보(사장 송광석)는 4월 14일 평택시 소사벌레포트타운 실내체육관에서 도내 장애인복지단체장, 유관기관장 등 내빈들과 도내 장애인 약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21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경철 이사, 경기도 보건복지국 이한경 국장, 경기도의회



평택시에서 제21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이 열렸다.

천동현 부의장 등 내외빈이 참석

해 수상자 및 참가 장애인을 격

려했다.

제21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

마당은 1부 행사로 장애를 극복

한 모범장애인 및 복지유공자에

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상, 경기도지사 표창장 등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2부 문화축제 행사는 배드민턴, 휠체어탁구, 과녁게임, 훌라후프, 남자휠체어경주, 여자휠체어경주, 장기자랑까지 7개 종목을 준비했으나 우천으로 배드민턴과 휠체어탁구를 제외한 5종목을 치르게 됐다.

경기 결과 종합우승은 이천선수단이 차지했고, 2위에 동두천선수단, 3위에 성남선수단이 올랐다.

영덕군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터전

경북지장협 영덕군지회 사무실 개소식



영덕군지회 개소식 기념 촬영 모습.

영덕군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기지가 문을 열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지회장 김대환, 이하 영덕군지회)는 4월 3일 영덕군 영덕읍 로하스빌 상가건물 1층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하며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식 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 강석호 국회의원, 이희진 영덕군수, 손달희 영덕군부의장, 조창용 부산장애인총연합회장, 정진용 부산지체장애인협회장, 경북지장협 각 지

회장 등 내외빈 30명을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소식에서 김대환 지회장은 참석한 모든 이들을 소개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인사말로 “지장협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가며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강석호 국회의원은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영덕군지회 측은 개소식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대구지장협-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MOU

장애인 권익증진 위해 맞손



대구지장협과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MOU를 체결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창환)는 3월 27일 대구광역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도충구)와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MOU는 양 기관의 협력적 관계망을 통해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공유

해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사됐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상호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김천의료원서 장애인편의시설 카툰 전시회

“장애는 우리의 편견에서 시작합니다”

김천의료원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카툰 전시회’가 열려 환자

와 내원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는 3월 25일 의료원 1층 로비에서 박선하 지회장과 김미경 김천의료원장, 임직원 및 이용고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회 개회식을 진

행했다.

개회식에서 박선하 지회장은 “김천의료원 전체가 장애인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잘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역사 깊은 김천의료원이 100주년이 되는 2021년도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 인식개선이 아닌

다른 캠페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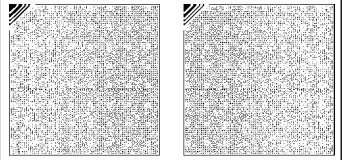
김미경 원장은 “많은 이용고객에게 편의시설 카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앞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해 김천시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천의료원에서 펼쳐진 '장애인편의시설 카툰 전시회'.

이번 카툰전시회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동성과 접근성 확대, 편의증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목적을 두고 4월 10일까지 3주간 펼쳐졌다.



경북지역 중증장애인의 의료봉사

4일간 도내 순회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경북 도내 중증장애인 의료봉사활동이 4일간 진행됐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영식, 이하 경북지장협)는 3월 30일 포항, 경주, 영천 등을 포함하는 1권역 거점인 포항시지회를 시작으로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나눠 경상북도 관내 중증장애인 대상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 31일에는 김천, 구미, 칠곡 등지의 거점인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고, 4월 1일에는 3권역이 모이는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2일은 4권역은 용산안동병원에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 무료 종합건강검진 모습.

서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평소 장

애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정기적 검진이 어려운 관내 중증장애

인들에게 개별 건강상담 기회를 제공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사전에 각 지회를 통해 기초문진표를 작성한 건강검진대상자들은 권역별 지정장소에서 혈액종합검사, 암표지자특수검사(채혈, 소변검사 등), x-ray, 갑상선기능검사, 한방진료 등을 받았다.

김영식 협회장은 “앞으로도 경북 지역 내 대형병원과 협력해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가 절실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지장협 희망투어 간담회

김형곤 협회장, 고창군·정읍시 방문



3월 23일 정읍시지회 희망투어 간담회 기념 촬영.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형곤, 이하 전북지장협)이 도내 지회를 대상으로 희망투어 간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3월 23일 정읍시지회(지회장 김택진)를 방문해 임직원들

과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에 관해 의견을 나누며 격려했다. 이날 김형곤 협회장은 ▲장애운동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확산 ▲장애운동 내 권력분산 및 민주주의 실현 ▲여성장애인,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의 참여 확대 ▲장애대응에 근거한 운동 ▲장애대응이 장애를 정치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참여할 것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4월 9일 고창군지회(지회장 신옥)는 고창군민종합복지관 소회의실에서 김형곤 협회장과 희망투어 간담회를 실시했다. 지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에서 김형곤 협회장은 “지회 발전을 위해 분회 활동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분회장 회의를 통해 회원 간의 소통과 지회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회원 개개인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한 능력 개발에도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협약식

김천장북-대경기능인봉사회·한국폴리텍대 구미캠퍼스 MOU



김천장북이 대경기능인봉사회·한국폴리텍대 구미캠퍼스와 MOU를 체결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은 4월 2일(목) 대경기능인봉사회(회장 이분순),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학장 이세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능봉사활동, 자원봉사 등 지역

의 현안 과제를 포함한 폭넓은 의미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경북 지역의 상호 공동발전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천장북 개관 11주년 기념행사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북)이 3월 16일 개관 11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기념식은 영천장북 11년사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우수 이용고객 표창, 어울림 한마당 순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 김수용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전종천

영천시의회의원, 조명재 사회복지과장이 참석해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에 힘 쓰는 복지관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제근 관장은 기념사로 “이번 1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직원과 이용고객,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를 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용고객,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다”고 마음을 표현했다.

기념식이 끝나고 후원자, 자원봉사자, 이용고객 등 120여 명이 직원과 함께 율놀이 대회를 열어 화합을 도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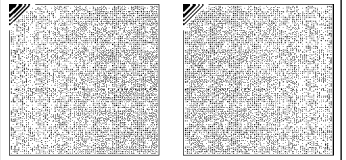
문경 가야웨딩홀, 문경장북에서 밥상 나눔

문경가야웨딩홀(사장 이병순)은 3월 31일 문경시장장애인복지관(관장 박종훈)에서 저소득장애인 및 주민 23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밥상 나눔’을 펼쳤다.

밥상은 육개장과 잡채 등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후식으로 떡과

과일 등을 곁들여 잔치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병순 사장은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배식 보조, 취사조리, 자원봉사 활동과 더불어 무료급식 행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장협 장애인복지관협의회 신입 및 중간관리자 모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복지관협의회(회장 조문호) 산하 20개 복지관 종사자들이 모여 역량강화를 도모했다.

신입직원 및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3월 26~27일까지 양일간 대전 라온 컨벤션에서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첫 번째 특강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성공하는 장애인 복지 종사자로서의 자세’였다. 김광환 회장은 “‘우리의 능력을 믿는다. 이웃에 봉사한다. 국가에 공헌한다’는 협회의 신조와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며 “전달자의 역량강화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기념 촬영.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복지관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광주대학교 정희경

교수가 ‘한국 장애인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하며 통합교육을 마쳤다.

둘째 날은 신입직원과 중간관

리자 과정을 각각 나누어 실시했다. 신입직원 과정은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가 ‘장애등급제 폐지 방침에 따른 향후 추진과제’

와 ‘장애의 정의, 분류, 측정’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로서 고민할 정책적인 부분을 짚어내는 한편 반드시 숙지해야 할 장애 관련 사항을 교육했다.

중간관리자 과정에서는 삼육대학교 정종화 교수가 ‘고객의 참여를 통한 고객가치의 실현’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서 정무성 사회복지시설평가 총괄 위원장은 ‘2014년도 장애인복지관평가의 의미와 향후 사회복지 시설 평가 전망’을 강의하며 올해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평가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유성장복 개관 10주년 기념식

“함께한 10년 더 큰 희망으로”



유성장복이 개관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유성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성도, 이하 유성장복) 개관 1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4월 15일 열린 기념식에는 장애인과 가족 1000여 명을 비롯

해 이견회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장, 허태정 구청장, 노승연 유성구의장, 시의원, 구의원 등 내빈들이 유성장복의 10주년을 축하했다.

손성도 관장은 인사말에서 “10년간 잘 다져 온 기틀 위에 장애인을 중심으로 희망, 나눔, 봉사를 실현하며 즐겁고 행복한 복지관, 늘 함께하고 싶은 복지관으로 거듭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관장뿐 아니라 복지관 임직원들도 이용고객에게 박수를 보내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성과를 돌렸다.

기념 공연으로 연정국악원, 유성구합창단, 품바, 가수 류찬 등이 무대에 올라 즐거움을 선사했다. 주인공인 장애인과 가족들이 장기자랑도 진행해 재능을 발휘하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광해공단, 국민연금대전지역본부, 국민은행반석동지점, 조연회 씨 등이 후원했다.

장애인의 날 기념 북부문화대축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융합 복지연대를 염원



북부장복이 진행한 ‘함께 그리는 세상’ 참가자들.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북부문화대축제가 열렸다.

서울시립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복)은 4월 17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넘어선 융합으로서의 복지연대를 염원하며 ‘함께 그리는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축제를 벌였다.

이날 복지관 이용고객, 민간기업 삼성SDS 자원봉사자, 직원 모두 함께 피포페인팅 조각그림을 채색해 대형 퍼즐그림을 완성했다. 북부

장복 관계자는 “작은 참여와 관심으로 큰 감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빛소리 통기타밴드의 공연이 울려 퍼지자 어른들은 7080가요를 함께 부르며 추억을 떠올리고, 어린이와 청년들은 장단을 맞췄다.

북부장복은 행사의 주인공으로 참여한 이용고객에게 박수를 보내는 한편 삼성 SDS 자원봉사자와 행사에 관심과 격려를 보낸 서울시, 노원구청에 감사사를 표했다.

최되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와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해 상위 입상을 노릴 계획이다.

아산 지적장애 농구팀, 전국대회 4위 입상

아산시장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성모복지원 이용자들과 온양신정중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지적장애인 농구팀 Dream Challenger(이하 드림챌린저)가 전국대회 4위를 달성했다.

드림챌린저는 4월 9~10일 1박2일간 펼쳐진 제8회 고양시장컵 전국지적장애인 농구대회에 참가해 5대5 팀 경기에서 1그룹

에 배정됐다. 같은 그룹에 배정된 동방학교,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원주드림, 인천시장래인종합복지관 인천미르와 한 조로 편성돼 당당하게 경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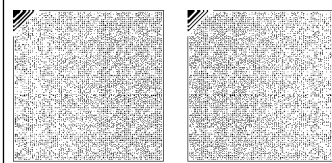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원주드림과의 준결승 경기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13:19로 석패했다. 아산 드림챌린저 유태

훈 선수의 큰 키를 이용해 박빙의 경기를 펼쳤지만, 승부처마다 결정적인 패스미스가 나와 승리를 놓쳤다.

이어진 3, 4위전 인천시장래인종합복지관 인천미르농구단과의 경기에서는 유태훈, 주용범 트윈타워를 이용한 높이로 대등하게 맞섰지만, 급격한 체력 저하로 연속 속공을 허용해 16:30

으로 패하며 4위를 차지했다.

드림챌린저는 현재 충남농구대표로 활동하며 매주 꾸준히 훈련하고 있다. 올해에는 6월에 개



따뜻한 손길이 있는 쉼터

문경시장장애인단기거주시설 개소식

문경시장장애인단기거주시설(시설장 박종훈, 이하 문경단기시설)이 3월 31일 개소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복지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고윤환 문경시장, 이응천 시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종훈 시설장은 “지역사회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 가장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경단기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일정 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한다.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기 위

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문경시에 수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그 밖에 문경단기시설은 앞으로 지역의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사회적 인지기능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경시장장애인단기거주시설 개소식 케이크 커팅 장면.

태안장복-육군1789부대 사회공헌 협약

정기 이동목욕 자원봉사 활동 지원



태안장복과 육군 1789부대 3대대가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태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만)과 육군 1789부대 3대대(대대장 김효종)가 4월 8일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육군 1789부대 3대대는 매주 정기 이동목욕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지역 장애인의 재활사업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김효종 대대장은 “향토예비군 중대에서 그동안 목욕봉사를 실천해 왔다”며 “향후에는 목욕 이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에까지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싶다”며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을 꾸준히 돕겠다”고 봉사활동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이종만 관장은 “건강한 남자 봉사자가 많이 없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대에서 도움을 줘 고맙다”고 전했다. 이어서 복지관 임직원들은 육군 1789부대 3대대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정읍시민 ‘달팽이한걸음’ 성료

정읍장복, 장애인의 날 기념해 시민과 함께 개최



정읍시민과 함께하는 ‘달팽이한걸음’ 기념 촬영.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정읍시에서 걷기 행사가 열렸다.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형, 이하 정읍장복)은 4월 11일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제7회 ‘달팽이한걸음’을 개최하고, 2500여 명의 정읍시민과 함께 내장호 오솔길을 걸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북협회(회장 이희수, 전주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와 함께한 이날 행사는 전주, 군산, 남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11개 시·군 복지관에서 500여 명의 장애인들이 모여 비장애인과 함께 걸으며 서로의 건강한 삶을 기원했다.

행사는 정읍경찰서를 비롯해 정읍 8098기동대, SGI정읍권, 호남스틸, 덴마크우유, 대한제과협회 정읍시지부, 정읍농협, 정읍산림조합, 홈마트, (유)정마트,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정읍시협의회, 할렐루야교회, 신광교회, 우리마태어린이집,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정다운요양병원, 정읍여고, 서영여고, 전북과학대, 전주대 등 350명의 자원봉사자와 여러 분야의 후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정읍장복 측은 “해가 거듭될

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것처럼 손수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분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걷기 이외에도 가족단위 정읍시민들의 즐거움을 돕는 다양한 이색 이벤트도 펼쳐졌다.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장애체험부스, 지역공동체 프리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테마부스도 열렸다.

남편, 자녀와 함께 걷기에 참여한 정읍시민 박옥란 씨는 “박장대소” 구간을 비롯한 미션구간에서 마음껏 웃고, 즐기며, 힐링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정읍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거둬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형 관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을 맞잡고 걷는 이번 걷기행사는 내장산을 배경으로, 분홍빛 벚꽃과 산의 푸르름, 내장호의 청아함이 멋있게 어우러져 힐링하는 걷기가 되었다”며 “따뜻한 봄날 가족과, 장애인과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 두리하나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용인처인장복, 지역사회와 희망의 열매 맺기



용인처인장복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개최했다.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처인장복)은 4월 15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용인중앙시장상인회와 함께하는 2015 두리하나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개최했다.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카페와 5일장이 열리는 금학천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한 캠페인은 올해 11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사회참여 촉진·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

처인장복은 다양한 캠페인 홍보 판넬과 희망열매 맺기를 통해 용인시민들에게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복지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3월 지역발전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활기를 띠었다”면서 고마움을 표현했다.

5월 9일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세계 정상급 선수부터 장애인 · 비장애인 어울림 마당까지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5월 9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사진:22회 대회 모습).



풀 · 하프 코스.

■ 톱클래스 선수들의 치열한 승부

세계 정상급 휠체어 육상 선수들이 모여 서울 도심에서 펼쳐는 승부전, ‘제23회 서울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휠체어마라톤은 앞바퀴 하나, 뒷바퀴 두 개가 달린 경주용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밀어 달리는 것으로, 최상위권 선수들의 속력은 시속 30km로 1시간 20분대의 기록으로 폴코스를 완주한다. 이번 대회 폴코스 참가 선수 중 30% 이상이 1시간 20~30분대 기록을 가진 선수들이다. 전세계 상위권으로 손꼽히는 선수들이 모인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휠체어마라톤은 0.01초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기도 할 만큼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서 속도 조절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물을 마시는 지점이 없다. 각자의 휠체어에 물

통을 부착해 경기하며 안전을 위해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지난해 4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따라 열리지 못하고 2년 만에 개최되는 휠체어마라톤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회 신기록을 경신한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 우승과 새로운 기록을 갈망하는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대회 1시간 20분 52초로 가장 먼저 풀코스 결승점을 통과하는 동시에 200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어니스트 반다이크가 세운 대회 신기록(1시간 21분 46초)을 넘어서며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간 스위스의 마르셀 후크(29세)는 이번 대회에도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그와 함께 지난 대회 마르셀
흑과 박빙의 승부 끝에 준우승
으로 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한
일본 호키노우에 코타(41세)의
도전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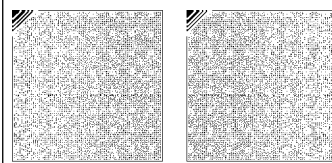
이번 대회 풀/하프 코스 참가

국은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14국이며, 3000여 명이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국 선수들의 경우 아직도 견재함을 보이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휠체어 육상 간판스타 홍석만(40세)과 이에 도전장을 내민 이기학, 그리고 하프에 출전하는 유병훈 등 한국 선수들의 승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석만은 2011년 펼쳐진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 1시간 27분 4초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바 있으며, 22회 대회에서는 국내 선수 가운데 2위(전체 10위)를 차지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이밖에 한국여자선수로 2013년도에 풀마라톤을 최초로 완주한 김수민(28세)이 이번에도 풀마라톤에 출전해 완주가 아닌 기록단축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아테네장애인올림픽
에 미국 육상대표로 4개 종목에
참가할 만큼 뛰어난 운동실력과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제22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시상식.

5km 코스 경기는 경쟁과 어울림 부문으로 나뉜다(사진: 22회 대회 모습).

꾸준함을 자랑하는 제이콥(45세)도 눈에 띈다. 12살에 미국으로 입양돼 미국인으로 살게 되었지만 고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커 꾸준히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이번 대회는 전문 핸드사이클 하프(21.0975km) 종목을 추가해 새로운 저변을 넓혔다. 이번 대회를 위해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고자 준비하고 있는 핸드사이클 선수들의 질주도 주목해 본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어울림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톱클래스 선수들의 휠체어 레이스 외에도 5km 경쟁 부문, 비경쟁인 5km 어울림 부문 경기도 펼쳐진다.

5km 경쟁 부문은 전국의 휠체어 선수 300여 명이 출전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달리며 기량을 선보인다.

5km 어울림 부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자리로, 장애유무·연령·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해 가족 및 지인들과 봄날 한강시민공원 일대에서 코스를 밟으며 추억을 쌓을 수 있다.

■ 조직위, 철저한 준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월 초부터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부처,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대회를 준비해 왔다.

서울시와 도로공사의 협조를 받아 코스 중 하자가 있는 곳은 사전에 보수 작업을 마쳐 선수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이머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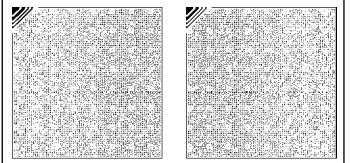
코리아의 후원으로 스마트마라톤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안전 및 의무대책을 입체적으로 수립,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리심의위원회도 거론히 통과하였다.

그 밖에 교통통제로 인한 인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 소식지, 안내문, 방송 등을 통해 행사 진행을 사전 공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홈페이지(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광환 조직위원장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감동과 환희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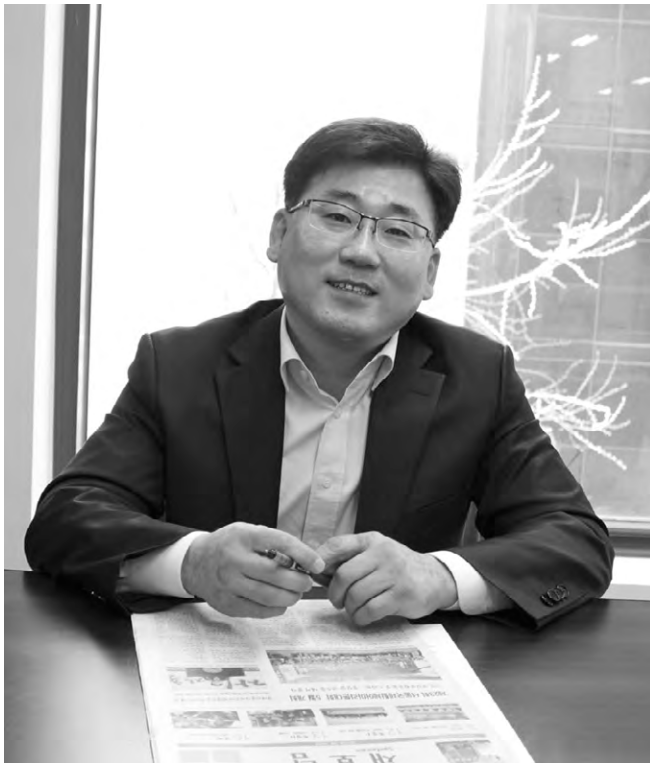
■ 대회개요

- 대회명 :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 기 간 : 2015. 5. 6.(수) ~ 5. 9.(토) (3박4일)
 - ※출발식 : 5. 9.(토) 07:40~08:00(서울잠실종합운동장)
 - ※본경기 : 5. 9.(토) 08:00~11:00 (서울잠실종합운동장~성남일대)
- 개최지 :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마라톤코스(공인코스)
- 참가규모 : 14개국 15,000명(선수 3000명, 임원·자원봉사자 등)
- 대회종목 : 풀(42.195km)/ 하프(21.0975km)/ 5km(경쟁) / 5km어울림(비경쟁)
 - ※핸드사이클 하프 출전
- 주최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 주관 :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 후원 :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KBS
- 협찬 : 신한금융그룹
-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공식음료 : 포카리스웨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진정한 장애인당사자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관해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당사자주의를 통해 장애인 운동을 견인해 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다시 한 번 힘 있는 발돋움을 시작했다. 지난 2월 취임한 안진환 상임대표를 만나 장애계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봤다.

Q. 국내 유일한 장애인당사자 연합조직인 장총련의 상임대표로 취임하신 소감은?

A. 장총련의 변화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책임감의 무게를 통감합니다. 행정적·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지만, 돌이켜보면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을 만들어 온 곳이 장총련이고, 장애인운동의 역사 또한 그러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Q. 장총련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A. 장애인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사회 환경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견제하고 장애인의 권한을 중시하는 장애인복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 통합과 독립, 자기결정을 달성하려는 당사자 주도의 발전된 권리운동입니다. “우리 자신의 소리”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장애인당사자주의’의 목표입니다.

Q. 재임 기간 장총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예정이신지요?

A. 장총련 회원의 역량 강화와 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에 힘을 쏟는 한편, 장애계 정책 이슈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등급제, 장애종합 판정체계 개편,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발달장애인지원법 후속 조치 등 예민한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발언할 것입니다.

Q.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 있다면?

A.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실현하는 길에 시설 장애인의 인권 침해와 노동력 착취, 경제적 갈취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고 탈 시설 정책을 견인하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근육·청각·척수·정신·화상장애인 등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소외된 소수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힘 쓸 것입니다.

또, 장애인 당사자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에도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체육 쪽의 활동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문화예술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 장애인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에도 회원단체들과 지혜를 모으려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의 연령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현재 고령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이면서 노인인 고령 장애인은 이중적 핸디캡을 가진 존재로 안전권, 건강권 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큼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고령 장애인에 대한 노동과 소득구조, 사회적 인프라 등 입체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Q. 장총련 상임대표와 함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자립생활 운동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론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자립생활운동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집에서 지역사회로 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제각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자연이 있었습니다.

또, 각 지역 센터들이 설립 이후 상당 기간 각자 생존에 치우쳐 모래알같이 활동했지만 한자연이 구심이 되어 하나로 모으는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현재 91개 센터가 연합해 있으므로 양적인 확대를 일단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질적으로 가다듬느냐가 숙제입니다.

Q. 한자연 활동을 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A. 2012년 허정석 씨, 2014년 오지석 씨 등 서른 살 젊은 청춘의 죽음이 가장 뼈아팠습니다. 이들은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으로, 평소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부족을 호소하다 결국 호흡기 이탈로 운명했습니다. 두 청년은 최종증 장애인임에도 ‘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제의 멍에에 걸려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장애 유형과 장애 특성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적용됐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Q.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A.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급여’가 ‘추가급여’에 비해 너무 단출한데요, 일단 기본급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동보조 급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종증장애인의 경우 ‘독거 세대’ 조항을 손질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례 조항이라도 신설해 억울한 죽음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노동 강도에 따라 차등 수가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종증장애인에 대한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가 3급까지 확대되는데, 대상자를 확대하는 양적 확대만 이루어진 것이 아쉽습니다. 이는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원취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질적 확대를 위해서 위의 세 가지 보완점이 하루빨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한자연 상임대표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A. 중증장애인의 권익과 인권을 대변하는 최고의 단체로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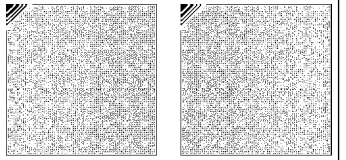
Q.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장애인계는 장애인 인재양성을 위해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뭉쳐서 큰 목소리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책적 대안 운동에 접어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장애인 인재를 키워내는 전략적 사고와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당사자는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책도 읽고,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Q. 개인적인 바람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A. 제 인생의 신조가 “불꽃처럼 사는 삶”입니다. 앞으로도 장애계 대표로서, 또 평범한 활동가로서 중증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땀 흘릴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원 단체들의 이익과 권리에 대해 집중해 일하고, 장총련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젊은 사람이 사욕을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 목표입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정보통신보조기기 74종 4천대 보급

서울전시회 4월 30일까지 2일간 SETEC 열려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최신기술 및 정보습득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74개 제품 4천여 대를 보급·지원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접수처나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된 보급 대상자는 제품 가격의 80~90%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올해 선정된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총 74종으로 △시각장애인용 43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8종 △청각·언어장애인용 23종 등이다.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 1588-2670에 문의하거나 시·도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신청·접수 기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체험전시회'를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 17회 개최된다. 서울지역은 오는 4월 29, 30일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SETEC에서 'Able EXPO 2015'와 동시행사로 개최된다.

전시회 참가자는 정보통신보

조기기 관련 정보 및 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지체·뇌병변 장애 유형(8종)

△키보드&키가드 △스마트나브4AT △엔에이블러조이스틱 △엔에이블러트랙볼 △24인치 멀티터치모니터/TV △24인치 터치모니터LED TV △스마트 신호기 △페이지터너리더블3

◇시각 장애 유형(43종)

△센스리더 베이직 △센스리더 프로페셔널 △센스리더 더 넥스 △업그레이드용 센스리더(B2P) △업그레이드용 센스리더(P2N) △업그레이드용 센스리더(B2N) △Korean JAWS Professional △한글 윈도우 아이즈

△오닉스 HD 24 △클리어뷰 C 24 HD △메조 △베오 △다빈치 HD △머린 Ultra △아크로벳 LCD HD 24 △트랜스포머 △E-bot 프로 △E-bot 어드밴스 △라이프스타일HD/24 △루비 XL HD 5 △컴팩 4 HD △컴팩 7 HD △아미고 HD △페블HD △라이프스타일 캔디그립(캔디5 HDⅡ) △캔디4 HD △스노우 △스노우 7 HD △한소네 U2 △한소네 U2 쿼터 △한소네 포켓(U2 미니) △SEIKA mini △스마트비틀 △책마루2 OCR ET △리니오 포켓 △소리안 썬더 △책마루2 OCR EZ △리드이지 무브 △리드잇 완드 △Lux Zoom △쥬텍스트 △한글아이쥬 △점박이(BL-2011)

◇청각·언어 장애 유형(26종)

△비쥬폰 CIP-6500 (H) △비쥬폰 CVP-2000 △스마트비쥬폰 SMV-3000 △스마트 프라임 영상전화기 △마이토키 스마트 △보이스탭 △With Talk(7인치) △오케이톡톡 △소리자람 △스피치미러(Pro) △한글짱 △모모야 모모 언어훈련 PAD △말·말! 말. △디즈(포켓/목걸이 타입) △에숍(ESOB) 목걸이형 △무선 미니 마이크 △무선 TV 스텐더 △무선 폰 클립 △무선 음향 보조기기 3종 세트 △무선 음향 보조기기 2종세트A △무선 음향 보조기기 2종세트B △소리알리미 △영상부르미 △케어데프 플러스(CARE DEAF PLUS) △케어파이어 (공동주택용) △케어파이어 (단독주택용)

장애인전문 EXPO!!

www.ableexpo.or.kr

Able EXPO 2015

2015 장애인복지 & 보조기기 박람회 관람안내

4. 30(목) 10:00~17:00 SETEC 제3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동시 개최 & 부대행사

2015 서울시장장애인취업박람회

첨단 재활로봇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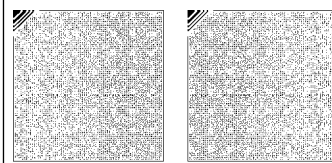
전동휠체어 체험 & 무료 AS센터 운영

보조기기 학술대회 & 컨퍼런스

재활보조기기 | 이동·편의시설 | IT 보조기기 | 첨단 재활로봇 | 헬스케어기기 | 기관·단체 홍보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61 4층 복지정보센터 Able EXPO 2015 사무국 www.ableexpo.or.kr

TEL 02-2672-5662, 02-2676-9935 / FAX 02-2672-5663 / ableexpo@naver.com



시각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수상작품전

우리들의 눈 갤러리 예술교육 결실



우리들의 눈에서 시각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수상작품전이 열렸다.

제9회 시각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수상작품전 ‘프리즘 프라이즈(Prism Prize)’가 열렸다. 3월 12일 시상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우리들의 눈 갤러리에서 진행한 전시회에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시각장애학생 미술공모전은 시각장애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의성 계발과 미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리들의 눈에서 주최하는 전문미술상이다. ‘Art & Busines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기업의 이름으로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맹학교 중 5곳에서 참여했으며, 응모작품 57점 중 10점이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인 우리들의 눈상은 한빛맹학교 정하영 학생의 ‘얼굴들’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한빛맹학교의 양윤성, 이남권, 이지혜, 김유진 학생, 청주맹학교 최형락 등 6인의 공동작품과 이현주 학생, 전북맹아학교 장문수 학생, 대전맹학교 김태완 학생, 충주성모학교 허유리 학생이 수상했다.

이밖에 선생님상은 우리들의 눈을 통해 20년간 학생들을 가

르친 고주경 티칭 아티스트가 받았고, 공로상은 전문미술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방 시각장애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받도록 꾸준히 도운 전북맹아학교 권선정 교장이 받았다.

우리들의 눈 이연주 프로그램 매니저는 “과거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미술에서 소외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개성 있고 섬세한 감각을 동원한 작품들이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과 작품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천 명 관중 앞에 선 지적장애 첼리스트

제12회 밀알콘서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

첼리스트를 꿈꾸던 지적장애 소년이 손톱에 피가 나도록 연습해 연주자로서 무대에 섰다. 3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2회 밀알콘서트에서 3천 명의 환호를 받은 차지우(19세) 군이 그 주인공이다.

차지우 군은 2011년부터 첼로를 배우기 시작해 2013년 2월부터 밀알복지재단 밀알첼로앙상블 단원으로 전문연주를 배우고 무대에 서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연습한 지 2년 만에 전문 비장애인 연주자들과 함께 한 무대에서 연주를 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다.

차 군은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셔서 고맙다”며 “첼로 연주를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차 군이 비장애인 전문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선 밀알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무대에 서는 통합음악회다. ‘함께하면 통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2004년부터 12년째 진행해왔다.

이익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공연은 서진의 지휘와 밀알페스티벌의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지현, 테너 정의근,



밀알콘서트에서 첼리스트 차지우 군이 연주하고 있다.

바리톤 박진수, 바이올린 이수빈 씨의 연주와 장애공감퍼포먼스까지 박수가 이어졌다.

밀알복지재단의 정형석 상임대표는 “밀알콘서트는 장애인이 세상 밖으로 나와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뜻 깊은 행사로써 많은 사람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독려의 말을 전했다.

순천만 등 6개소 ‘열린 관광지’ 선정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목표

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선보인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진행된 열린 관광지 공모전에는 전국 총 21개 관광지가 응모했다. 1차 서면심사를 통해 관광 매력도가 높으면서 BF(Barrier Free, 고령자나 장애인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운동) 시설의 운영·관리가 우수하거나 시설 또는 서비스의 개선 계획이 충실한 10개 후보

지를 선별했다. 이후 이들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소비자가 참여한 2차 현장 평가를 하고 최종 점수를 집계한 결과 동점인 1개소를 추가로 인정해 최종 6개소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6개 관광지에 대해 컨설팅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확정하고, 관광지당 2억원 한도 내에서 개선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 연말에는 이들 열린 관광지의 개선 결과를 점검해 1호부터 6호까지 열린 관광지

현판을 부여할 계획이다.

문화부와 공사는 올 한 해 선정된 관광지를 열린 관광지 우수사례로 육성, 전국적으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쉽게 탈락한 관광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 컨설팅을 시행, 다음 공모전에는 더 내실 있는 개선 계획으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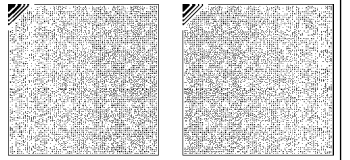


해안 하구의 자연 생태계가 원형에 가깝게 보전된 순천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 열린 관광지’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과 경주 보문관광단지, 용인 한국민속촌, 대구 중구 근대골목, 곡성 섬진강기차 마을, 통영 케이블카를

최종 선정했다.

문화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5년 열린 관광지’는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과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



한국, 동계농아인올림픽 첫 출전

2015 한티만시스크 동계농아인올림픽대회 9일간의 열전

세계농아인 스포츠인들의 지구촌축제인 2015 한티만시스크 동계농아인올림픽대회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9일간의 열전을 펼쳤다.

전 세계 27개국 692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총 5개 종목(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스노보드)이 열렸다. 처음 참가한 우리나라는 그 중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컬링에 42명이

출전했다.

5일간 선의의 경쟁을 벌인 결과 개최국인 러시아가 1위(금 12, 은 6, 동 12)를 차지했고, 체코와 미국이 뒤를 이었다. 한국 선수단은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해단식을 통해 다음 올림픽의 선전을 다짐했다.

한편 우리 선수단은 이번 올림픽이 처음 출전한 농아인 동계국제대회인 만큼 경기용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컬링의 경우

농아인 컬링 보급 역사가 길지 않아 정확한 용어가 없어 선수들끼리 자신들만의 표현을 만들어가며 경기를 치렀다. 알파인스키나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 선배들에게 전해오는 표현과 지화(손으로 표현하는 한글 자음, 모음)를 새로이 만들어 훈련했다.

한티만시스크 동계농아인올림픽 기술대표 딘 서튼은 “한국도 경기종목 수와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동계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한국 남자 컬링 대표팀의 경기 모습.



서울 광화문에서 제1회 평창 패럴림픽 데이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양호, 이하 조직위)는 3월 14~15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제1회 평창 패럴림픽 데이 선포식 및 체험행사’

를 개최했다.

2018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이하 평창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선포식은 조직위 조양호 위원장,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새정

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 홍보대사 김연아,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성일 회장 등의 내빈과 시민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양호 위원장은 “2018평창 패럴림픽을 세계의 모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며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선포식에 이어 홍보대사 위촉식과 아이스슬레지하키 시범경기가 펼쳐지며, 기대 어린 시민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편 부대행사로 휠체어컬링 등 패럴림픽 경기 종목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행사와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사진과 용품 등을 구경할 수 있는 전시도 펼쳐졌다.

평창패럴림픽 데이는 대중에게 생소한 장애인 엘리트 체육 종목을 알리고 패럴림픽의 정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과 독일 등의 국가도 패럴림픽 데이 행사를 열어 패럴림픽 대회의 주요 홍보수단으로 사용했다. 이 행사는 향후 3년간 시리즈 형식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제1회 평창 패럴림픽 데이 개최

시범경기 및 체험행사 열려

제17회 빛고를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

광주광역시 B팀 개최 이래 첫 우승

광주광역시에서 제17회 빛고를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 열렸다.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최남규, 이하 광주지장협)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광주 전천후게이트볼경기장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한 38팀 380여명이 출전했다.

개회식에서는 최남규 협회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배용묵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 부회장, 박해자 국회의원, 장병완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이틀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



제17회 빛고를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팀이 대회 개최 이래 첫 우승을 차지했고, 준우승은 서울 영등포팀, 공동 3위로는 전북 순창팀과 경남 김해팀이 올랐다.

광주광역시 B팀은 우승 소감으로 “밤낮으로 열심히 훈련한 결과 좋은 성과가 났다”며 “더 열심히 해서 빛고를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를 빛내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장협 관계자는 “빛고를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는 매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가장 큰 대회이자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면서 “신체적 기능향상은 물론 생활체육을 통해 서로 간 교류하고 재활자립 의지를 높일 수 있게 대회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척수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어울림한마당

럭비, 탁구, 배드민턴, 핸드사이클 등 열띤 경합

전국 척수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어울림한마당이 4월 10~11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렸다.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회장 구근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상북도협회(회장 최영수)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척수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경합을 벌였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한마당은 1박2일간 생활체육교류전과 종합재활마당, 문화예술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중 행사의 백미인 생활체육교류전은 럭비, 탁구, 배드민턴, 핸드사이

클 총 4종목으로 참가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이밖에 한궁과 휠체어 슬라롬을 시범종목으로 채택해 다양한 참여 기회를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시범 종목도 재미있었고, 풍성한 먹을거리와 다양한 체험마당, 경품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다”고 전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척수장애인들의 화합과 교류,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지역협회를 순회하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애인 밴드, 유로비전 결선 진출

다운증후군 · 자폐증 4인조 구성

오는 5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유로비전 가요제에 핀란드 대표로 4인조 펑크밴드 PKN(Pertti Kurikka's Nameday)이 결선에 올랐다. 다운증후군과 자폐성 장애인들로 구성된 PKN은 노래를 통해 소수자의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고 있다.

보컬 카리 알토는 “모든 장애인은 좀 더 용감해져야 한다. 장애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지 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6년 전 기타리스트 페르티 쿠리카를 중심으로 구성된 PKN은 2012년 주류 사회에 대한 장애인들의 반란을 묘사한 ‘펑크 신드롬’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낀 소수자의 감정을 노래하는 이들의 음악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콘서트도 진행했다.

유로비전에 참가하는 첫 펑크밴드이기도 한 PKN은 이번 대회에서 ‘나는 항상 해야만 해’라는 85초짜리 노래를 선보인다. 일상의 규칙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노래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나 청소, 설거지 등 꼭 해야 하지만 즐기기는 힘든 일들을 노래했다.

베이스스트 사미 헬레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저항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불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1956년 스위스에서 시작한 유로비전 가요제는 아바(ABBA), 셀린 디온, 조니 로간 등 유명한 가수들을 배출했다. 1998년에는 이스라엘 성전환 가수 다나 인터내셔널, 지난해는 오스트리아 여장남자 가수 콘치타 부어스트가 우승하며 음악을 통해 세상의 편견에 맞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PKN은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중의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고 평했다. 밴드의 매니저인 테우보 메르키니에미는 “그들은 노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전했다.



유로비전 가요제 결선에 오른 장애인 밴드 PKN.©BBC.

영국 누리꾼, 폭행당한 장애인 위해 모금

1만 7500명 참여...4억 원 기부



폭행당한 장애인 바네스 씨와 모금을 주도한 커틀러 씨.©Telegraph

영국에서 폭행으로 쇄골이 골절된 67세 장애인 남성을 돕기 위해 21세 여성이 웹페이지를 통해 치료비를 모금했다.

다.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신장이 140cm도 되지 않는 장애인 남성 알랜 바네스 씨의 폭행 소식을 접한 케이티 커틀러 씨가 인터넷을 통해 모은 4억 원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바네스 씨는 “모금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겨우 쇄골이 부러졌을 뿐인데 이 정도의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커틀러 씨는 바네스 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펀드 미(Go Fund Me)’라는 기부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처음 목표는 500파운드(약 83만 원)였지만 1만 7500여 명이 동참해 이를 동안 22만 7,000파운드(약 3억 8,000만 원)가 모였다.

커틀러 씨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매우 화가 났고, 굉장히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기부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목표치를 훌쩍 넘은 기부 결과에 대해 “세상에는 그만큼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바네스 씨는 커틀러 씨와 누리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기부받은 돈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겠나”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용 3D 안경 개발

방해물 인식, 사물의 색도 구분



러시아 연구진이 시각장애인용 3D 안경을 개발했다.©메트로 페테르부르크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사물을 확인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메트로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차세대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발명 그룹이 시각장애인용 3D 안경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시각장애인들

은 이 안경을 사용해 혼자 목표 장소에 도착하고, 방해물을 인식하며 사물의 색을 구분할 수 있다.

3D 안경 개발자 바딤 키타예프는 “우리 팀에는 젊은 시각장애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다”며 “그를 통해 시각장애인 안

경 개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3D 안경이 상용화된다면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이 혁신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3D 안경은 안경 내부에 GPS 시스템을 장착해 사용자가 수집하는 다양한 주변 정보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이동 중 방해물을 발견할 경우, 이 정보는 즉시 컴퓨터로 전송돼 3차원 모델을 구현하고, 내장 음성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방해물 정보를 알려 준다.

키타예프는 “사용자는 계단 같은 방해물은 물론 사물의 색과 신호등을 볼 수 있다”며 “3D 안경의 음성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독서를 하거나 상품의 바코드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3D 안경은 올해 말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3만 5,000루블(약 61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에 자막 없어...

청각장애인, 하버드·MIT 소송

미국 청각장애인들이 각종 온라인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용 자막을 붙이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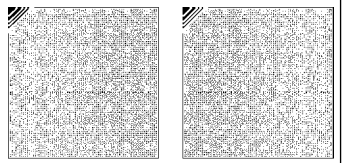
미국 청각장애인협회는 두 대학이 일반에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팟캐스트, 교육용 교재 등에 청각장애인용 자막이 없거나, 부정확한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사로 없는 빌딩이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막 없는 온라인 콘텐츠는 청각장애인이거나 청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대학에 대해 거듭 시정을 요구했으나 일부 강의에만 자막을 다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면서 두 대학이 청각장애인의 온라인 콘텐츠 접근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는 관련 부처가 필요한 지침을 내리면 따르겠다고 밝혔고, MIT 대변인은 청각장애인이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작년 미국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넷플릭스가 비디오 스트리밍에 자막을 제공하는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최근 입법 예고된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박성오 과장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9호, 2015. 1. 28. 개정, 2015. 7. 29 시행)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및 절차,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수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 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후속 조치로 이번 4월 14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범위(안 제5조의2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인증제의 저변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 및 절차(안 제7조의3)

현 법 규정 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고 있는 보호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보행 장애인에 한함), 장애인 복지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했다. 또 발급절차 및 관리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편의증진법에서 모두 규정하여 일원화하였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안 제7조의4 신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인·단체나 시설 등의 폐업, 보행장애인이 보행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반납하도록 했다. 이처럼 주차표지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고,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안 제7조의5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

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 부당 사용을 근절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안 제7조의6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은 신고가능하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신고가 불가능한 것을 명문화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안 제3조의2 신설)

시설주 등이 대상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 등을 시설주관기관에 신청할 때 시설주관기관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의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기존 편의증진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법규에 명시하였다.

(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안 제3조의3 신설)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인력, 제출서류 등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기준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안 제3조의4 신설)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대행기관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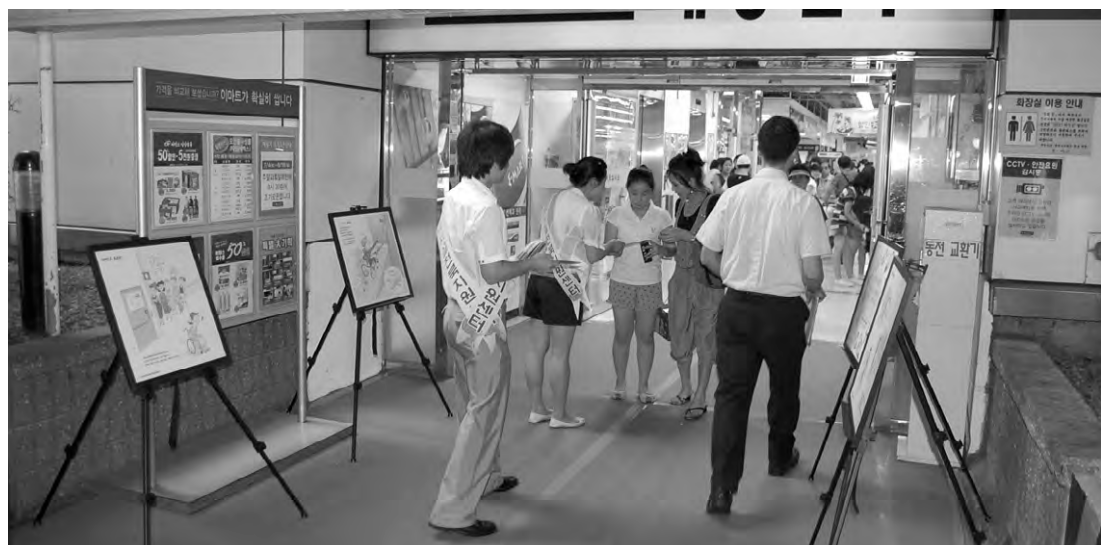
(4) 편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시기 등(안 제4조)

5년마다 실시하는 편의시설 전수조사 시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등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전수조사는 조사결과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였으나, 이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신력을 확보하였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관리(안 제6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현황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였다. 발급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였다.

위 내용 중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39-012,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전북센터

고용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바로 알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임금 감액 NO!

얼마 전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장애인 사업주가 전화를 했다.

의뢰인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상대적으로 작업량이 적어 정시에 퇴근하고, 월, 수, 목요일은 작업량이 많아 연장근무를 한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작업량이 없을 경우 1~2시간 정도 조기 퇴근하고 그 시간을 그다음 주 월, 수, 목요일의 초과근무 시간에 차감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경우에만 특정일에 8시간,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사업주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추가적 가산임금의 부담 없이 계절적 생산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의뢰인의 경우처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특정 주와 특정일을 지정해서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어떤 주인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어떤 날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의뢰인의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화요일과 금요일의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를 해도 될 상황이라면, 먼저 취업규칙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의 경우 1일 근로시간 ○시간, 화요일과 금요일의 경우 1일 근로시간 ○시간”이라고 명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아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해당 연장근로수당 지급액만큼 임금감액이 예상될 경우 사업자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填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조호근

여기서 임금보전방안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이 그동안 받아온 할증임금만큼의 연장가산액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수당형태로 포괄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원상담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장애인고용(II) 지원정책

Q) 2015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되었다면가요?

A) 지난해와 달리 사업규모(총 14,879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형일자리 4903명, 복지일자리참여형 8133명, 특수교육-복지연계형 877명 등 총 9010명,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703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263명입니다. 보수 면을 살펴보면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

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일반형일자리(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그 대상이며 복지 및 일반행정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 지원 등)의 근로조건은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이는 월 116만 7,000원으로 지난해 108만 9,000원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는 복지 일자리, 참여형의 경우 기존의 도서관 사서 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 보조 등에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하차 보조, 건강검진센터 보조, 대형서점 도서정리 직무가 신규로 추가되면서 총 24가지 분야로 늘어났습니다. 역시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며,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월 31만 3,000원을 받습니다.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으로 도서관 사서 보조 등으로 보수 역시 주 14시간 이내 월 31만 3,000원 수준입니다.

Q) 취업이 어려운 장애유형에 특화된 직종의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특화형일자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A)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으로 안마사 자격을 가진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

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18세 이상 등록시각장애인 중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고 근로조건은 주 5일(25시간) 월 1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는 것으로, 식사 도와드리기, 실내·외 보행 및 이동 도와드리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이며, 주 5일(25시간) 1일 5시간 업무를 통해 월 73만 1,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위 사업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보수 지급 시 인건비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할 때 일반사업장처럼 퇴직금을 지급해 주나요?

A)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했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받습니다. 단, 월 56시간 미만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 참여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일반형일자리 134만 160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115만 350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84만 900원이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일자리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2015년 장애인 맞춤형 취업박람회

현장면접과 이력서 컨설팅 지원 등

서울지역 직업재활 네트워크 유관기관 10곳이 '2015년 장애인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3월 31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누리홀에서 열린 이번 취업박람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이룸센터에서 '2015년 장애인 맞춤형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업체의 구인 현황을 확인하며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자리였다.

이날 구직자 200여 명과 30여

개의 구인업체가 참가해 이룸홀과 누리홀을 가득 채웠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현장면접을 비롯해 구직자 대상 이력서 작성 컨설팅과 이력서용 무료사진촬영,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행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업재활네트워크 유관기관들 간에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구인·구직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장애인 200명에게 인턴 기회·정규직 전환 지원

지난 3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두고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10개 장

래유형 구직등록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최대 6개월간 약정을 두고 일하며 인턴 기간 월

약정임금의 80%(월 최대 80만원)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자립생활 진영에서는 10개 장애유형 제한을 두고, 6개월간 짧은 인턴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남복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15개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평균고용률 36.6%)을 제외했는

데, 지체장애인 중 중증 근육장애인이나 전신마비 척수장애인 같은 최중증장애인은 취업률이 극도로 낮아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취업이 어려운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장애인 직무적합도와 장애 친화도가 높은 기관에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만을 위한 주차구역입니다.

“주차가능” 표지없이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거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4항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주세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방법



- ①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설치합니다.
- ②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실행합니다.
- ③ 민원인 정보를 입력합니다.(최초 1회 인증)
- ④ 불법 주차차 신고를 누릅니다.
- ⑤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을 클릭해 촬영합니다.
- ⑥ 내용입력을 클릭, 상세유형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선택 상세내용을 입력합니다.(신고위치 수정가능)
- ⑦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나의 민원정보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퀴즈

1.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는 이날을 맞아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 장애인권리찾기대행진을 개최하며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은 ○월 ○일일까?
2. 한편 2007년 UN에서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월 ○일을 세계 자폐인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은?

- 힌트 -

정답은 기사 속에 있습니다.

- 독자의견 -

새보람 잘 보고 있습니다. 신문을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김재광

장애인의 문제나 이슈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협동과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새보람의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은주

응모요령

응모요령 :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천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 news@kappd.or.kr〉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 정답
월채어마라톤
더해볼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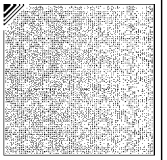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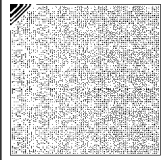
김재광 전남 무안군
윤은주 경기 양주시
민경호 경기 안양시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소리로 읽는 새보람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만을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결편지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A-AF15
ABLE ACCESS ART FAIR



ABLE ACCESS ART FAIR 2015

2015 제2회 장애인창작아트페어

쉽고 착한 아트페어 가가호호(家家號好)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문화예술향유를 위해 부담 없는 작품 구입으로
집집마다 작품 하나씩 소유함으로써 예술적 투자 가치와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아트페어!

예민한 감수성과 풍부한 상상력 창조예술(創造藝術)

장애경험을 반영한 미술가들의 영혼이 담긴 예술작품을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 발전과 힐링이 함께하는 아트페어!

기간 2015. 5. 15 금 ~ 20 수 10~19시

장소 문화역서울 284. 1, 2층 전관

개막식 2015. 5. 15 금 14시

장소 문화역서울 284. 1층 중앙홀

주최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주관 장애인작품이전페어포럼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n Craft & Design Foundation

한국장애인서예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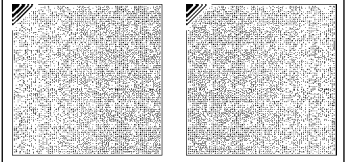


장애인창작아트페어조직위원회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9 동남오피스텔 803호
전화 02-2062-1571 / 팩스 02-2062-1572
홈페이지 www.ableart.n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ableartfair1571
트위터 @ableart2015

복지마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은 장애우가 아니다

용촉진등에관한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용해 1989년 공식적으로 ‘장애인’을 사용하였다.

이후 「심신장애자복지법」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법적 정식용어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심신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변경을 논의하던 1987년 장애우(障礙友)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장애우라는 단어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 모두가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감성적 해석을 내세우며 점차 확산되더니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장애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누군가는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바꿔 쓰자는 주장까지 했다. 언론이나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장애인 관련 행사에서 정·관계 인사들도 장애우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였다.

물론 장애우라는 단어는 친근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 보니 친근성을 강

조하기 위해 다양하게 사회와 방송 등에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어체계가 분명한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 장애우라는 용어는 나이가 많은 공경의 대상마저 존중받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장애인에 대한 법정용어이자 공식용어는 장애인이지 결코 장애우가 아니다. 그 이유로 먼저 장애인은 누군가의 친구이기 이전에 스스로 당당한 독립적 주체라는 점이다. 장애우라는 단어는 상대적이고 의존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졌다.

둘째,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1·2·3인칭 모두가 사용 가능한 표현이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주체적이며 가치중립적이어야 함에도 ‘장애우’라는 단어는 한 인간을 비주체적인 인간으로 형상화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전체를 비사회적인 집단으로 표현하여,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이 아닌 주변부의 시혜,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왜곡된 장애인관을 형성하기에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언어란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의

미의 체계’를 말한다. 즉, 단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인식하는 생각의 체계가 된다. 하지만 언어는 그렇게 수동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언어의 정의를 달리해 사회가 공유하는 체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혹자는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등의 구분이 무엇이 중요하나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의 정의가 사회의 인식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없다.

에이미멀틴이라는 미국의 한 강연자는 장애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본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사전에서 장애의 뜻은 매우 부정적이며 시혜적인 단어들로 꽉 차 있었다. 이 시선이 나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면 끔찍하다.

올바른 단어정립은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시작이다. 그 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상 실현을 위한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단어의 사용이 절실한 이유다.

역사상 장애인 복지에 눈을 돌린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으로 각 나라의 장애인이 속출하자 서방국가들이 장애인을 위한 생활 유지와 재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냉담하게 개인적 불행으로 돌리는 식이어서 오랫동안 장애인복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심신박약자, 불구자가 사용되었고, 언론에서도 개별 장애를 지칭하는 봉사, 병어리, 절름발이, 꼽추 등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다 법 제정 이후 장애자라는 법정용어를 사용했고, 점차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장애인고

1971년 초 서울, 설레는 마음으로 첫눈을 맞으며 퇴근하던 길에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군 입영을 한 달 앞둔 창창한 청년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충격적이었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한 줄기 빛도 들지 않는 벽장 앞에서 매일 소리죽여 울었다. 벽장 속의 어둠만큼 내 미래는 암울했고, 밖으로 나가는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그래도 용기를 내어라. 다리만 불편하지, 너는 정신도 손도 다 멀쩡하니 용기를 내다오.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

면 꼭 하고 마는 성품이지 않니?”라고 말씀하시며, 내 볼에 뜨거운 눈물을 떨구셨다. 그때야 비로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매던 내게 희망의 빛이었고, 용기 내 세상 밖으로 나갈 힘을 주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그때부터 고향인 양구군에서

부동산중개 일을 배웠다. 처음엔 실수도 잦았지만 모르는 것은 묻고, 밤늦게까지 책을 붙들고 공부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 활발하게 일하다 보니 지역 부동산협회 지회장을 맡아 이끌 기회도 찾아왔다.

성실하게 살며 시야를 넓혔고 주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 새로운

인생이 또다시 찾아왔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뛰는 더 행복한 인생 말이다. 남들에 비해 화려한 경력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 내가 흘린 땀으로 먹고살며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노력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장애인 복지 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장애인 자신이 먼저 변해야 이 사회가 변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존엄성과 인권을 가진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당사자 자신부터 확고히 해야 한다. 장애는 불편할 뿐 절대 기본권을 침해받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스스로 남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어서는 안 되고, 눈치 볼 필요도 없다. 환경에 굴하지 말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패배적 고정관



념에서 탈피해 스스로 의제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진정한 주역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주는 좌절과 절망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설 기회를 당부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금 어머니의 눈물을 떠올려 본다. 그 뜨거운 눈물은 현재 내가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변화시킨 전환점이었다. 지금까지 협회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이끌어 가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여러분의 생애 전환점은 어디였는지, 누구인지 떠올려 보라. 그 뜨거운 감동과 굳은 다짐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새보람 칼럼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김형수 협회장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64호 2015년 4월 27일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15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제23회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15년 5월 9일(토) 오전8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종목. 풀 | 하프 | 5km | 5km어울림

※비장애인 5km어울림 참가가능
(참가비 무료, 완주메달 및 기념티 제공)

온라인 참가신청

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

Tel. 02-998-9013 Fax. 02-998-9012

주최

KAPPD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SAD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Seoul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KAFD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주관

S.I.W.M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Organizing Committee

후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NPS 국민연금공단

KOSA 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KBS

국립한경대학교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협찬

신한금융그룹

사랑의열매
한국장애인복지재단

재정후원

KSPOT 국민체육진흥공단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공식음료

POCARI SWEAT